

하루 49독 이상 행주좌와 정진 10년... “번뇌가 사라졌어요”

일산 덕양선원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 회향

한국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외우는 천수경. 불자들은 천수경 가운데 가장 널리 외워지는 핵심인인 신묘장구대다라니(대비주)를 독송해 관세음보살과 삼보에 귀의하면서 탐진치 삼독을 가라앉히고 깨달음에 이르기를 발원한다.

일산 덕양선원(원장 법상)은 이러한 대비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량으로 유명하다. 신도들은 늘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선정(禪定)을 연마하고 군법당, 교도소, 불우이웃을 찾아 보살행을 실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자성불(自性佛) 수행”을 하면서 지혜를 닦는 선교쌍수(善教雙修)의 공부를 하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대비주 수행을 시작한 덕양선원은 2007년 첫 번째 10만독 성취법회를 봉행한 뒤 매년 10여명이 10만독을 해왔다.

하루 3~4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2년 6개월간 108독을 독송해야 10만독 성취가 가능한데, 신도들 가운데는 대비주 500만독을 성취한 불자를 비롯한 대비주 고수들이 수도룩하다. 100만 독을 성취한 수행자만 12명, 10만 독을 성취한 수행자는 무려 76명에 이른다.

이렇게 신도들이 인내하면서 꾸준한 수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덕양선원 선원장 법상 스님 덕분이다. 법상 스님은 직접 목탁을 치며 신도들과 함께 고성으로 대비주를 독송한다. 또한 신도들이 대비주수행을 하다 만나는 경계들을 상담해주고 두려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365일

행주좌와로 끊이지 않는 수행을 이어온 덕양선원은 올해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를 회향하는 법회를 4월 6일 덕양선원에서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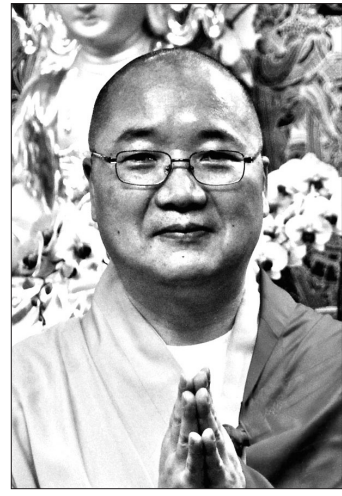
법상 스님은 “하기 싫고, 힘들고, 바쁘고, 아프고, 시간없고... 대비주 49일 수행을 거듭거듭 이어오는 동안, 목탁의 살피는 떨어져 나가고 목탁 채가 수없이 부러지는 등 갖가지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해보면 10년이 하루같이 아름다운 날들이었다”고 회향 소감을 말하며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려하셨듯이 저희들도 대비주를 거듭 지송하며 끊임이 없는 가운데 지혜, 자비, 복덕, 법력의 대비주(大悲主)로서 스스로 밝으며 주위를 밝히는 수행자가 되겠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열어주시니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향법회에서는 10만독을 성취한 참가자들의 수행 발표시간이 있었다.

김화자(73) 씨는 30대 중반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삼형제를 홀로 키우며 온갖 고생을 했다. 그러다 몸에 신을 모시게 됐고, 첫째·둘째에게 심한 우울증이 왔다. 두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온갖 방법은 다 써봤지만 집안 형편만 기울어 갔다. 2013년 1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꿈에서 대비주를 외우고 기도하는 꿈을 꿨다. 그 후 보름 뒤 불교TV에서 법상 스님의 ‘대비주 수행’에 관한 법문을 보고 부산에서 일산으로 한 달음에 찾아왔다. 법상 스님은 10만 독을 하라고 권



법상 스님(사진 오른쪽)은 일산 도심에 덕양선원을 열고, 신묘장구대다라니 49일 수행을 거듭하고 있다. 덕양선원은 매주 금요일 저녁 대비주수행 철야정진을 열고 있다.



**2004년부터 매일 대비주 독송
100만독 성취 12명·10만독 성취 76명
“수행 후 삶에 긍정적 변화 가져와”
4월 18일 2차 10년 결사 시작**

했고 김화자 씨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매일 천 독에서 이천 독으로 점점 늘려갔다. 기도를 시작한지 10개월 쯤 되자 몸속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했고, 아들들도 함께 대비주 수행을 시작했다. 두 아들의 우울증도 좋아졌고, 김화자 씨는 모시던 신을 정리했다. 김 씨는 “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 이렇게 달라진 나를 보고 주위에서 어떻게 된 일이나 고 묻는다. 대비주 수행을 삶을 다할 때까지

지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령 씨는 “10만독이 가까워질 무렵부터 독송 수가 수행에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 알게 됐다. 원하는 것을 사고 이루고 했을 때 잠깐 생겼던 환희와 감사의 마음이 차츰 내 일상에서 늘 함께 하는 것이다.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나로 인해 기쁨을 느끼는 것들이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라며 “대비주 수행을 만난 것은 알만 보고 달려온 숨 가쁜 내 인생의 말에서 내려서 내 영혼을 기다리고 달래주고 위로해 주는 나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덕양선원 신도들은 인터넷 카페 ‘덕양선원(caf.daum.net/zeol)’을 통해 매일 자기 정한 수만큼 대비주 독송을 하고 게시판에 수행일지를 쓴다. 이날 수기를 발표한 김화자·김자령 씨 뿐 아니라 신도들은 대

비주수행이 삶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입을 모은다.

법상 스님은 “대비주 수행을 하면 방하착(放下着) 공부가 저절로 되고, 깊이 집중해 삼매에 들어가면 안팎이 공한 가운데 신묘한 본래자리가 바로 드러난다”면서, “누구나 대비주 수행을 하면 지혜·자비·광명의 참소식이 삶에서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덕양선원은 4월 18일 두 번째 10년 결사를 입재하고 수행정진에 들어간다. 법상 스님은 “대비주 수행은 홀로 수행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수행법회에 동참해 더불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문을 들으며 선 지식의 점검을 받고 도반들과 함께 수행할 때 다투어거리들이 잘 드러나 해결이 빠르고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031)907-7172

이아은 기자

덕양선원의 대비주 수행법

1. <천수경>을 한 번 독송한다. 이 독송으로 기도에 필요한 귀의, 예경, 참회, 찬탄, 발원이 갖추어 진다.
2. 스스로 작성한 소원문을 읽는다.
3. 대비주를 한자리에서 49독 이상, 자기가 정한 수만큼 독송한다. 나머지 시간에는 행주좌와 중에 대비주를 끊임없이 지송한다.
4. 오늘 할 일이 중요한 수행이다. 오늘 할 일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해 나아가고, 그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으로 복을 지어간다.
일로 수행할 때의 방법은, 첫째, 일을 즐긴다. 둘째,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 셋째, 능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일과 관련된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어 작복한다.
5.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본래대로 보고 예배 찬탄하고 공양을 올린다. 대비주 수행은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방송PD들 “사람 냄새 나는 불교, 방송에 반영”

조계종 문화부 제2회 미디어 템플스테이서 호평

“20년 가까이 프로그램 제작을 하니 한국사회 여러 곳을 다 해보았다고 생각했지만 불교와 스님에 대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불교에 대해 긍정적, 호의적이 되었습니다.” - KBS 시사제작국 박진범 PD

조계종이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템플스테이에서 호평이 이어졌다.

조계종 문화부(문화부장 해일)는 3월 28~29일 1박 2일 동안 월정사와 상원사 등지에서 ‘제2회 방송 PD초청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미디어 관계자들의 심신수련과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올바른 불교문화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과 발전을 위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 중 PD와

공중파 방송PD, 한국PD연합회 추천회원 등 총 25명이 참가했다.

특히 지난해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을 담은 다큐 영화 ‘길 위에서’ 이창재 교수도 참가해 PD들에게 스님들의 수행에 대해 감독으로서의 느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문화부장 해일 스님은 입재식에서 “되도록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1박 2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의 환영사에 이어 진행된 사찰습의에서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사찰 예절과 예불에 담긴 의미를 배웠다. 또 스님들과의 대화시간에서는 사찰에서의 스님들 생활, 출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프로그램



조계종 문화부(문화부장 해일)는 3월 28~29일 1박 2일 동안 월정사와 상원사 등지에서 ‘제2회 방송 PD초청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후에도 몇몇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스님을 찾아 상담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상원사 주지 인광 스님은 “불교는 행복하기 위한 종교”라며 재미있게 해설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PD연합회 김광선 씨는 “진짜 불교를 만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PD연합회에서 추천할 만 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위기상담교육

3월 29일 국제회의장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3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 자살위기상담교육(불교상담심리사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2부로 나누어 불교상담심리사 자격관리 오리엔테이션과 성승연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자살위기상담교육’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는 불교상담심리사와 외부참가자 등 70여 명이 참가했으며, 1부에서는 불교상담심리사에 대한 자격유지관리요건과 불교상담심리사1급 취득에 필요한 조건과 방법, 그리고 현재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진행 중인 전문상담사 사업(어르신 상담팀, 군 전문상담팀, 교정교화봉사팀, 노동자심리상담센터 ‘도반’, 여성가족 부공모사업)에 대한 설명이 소개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3월 29일 ‘2014 자살위기상담교육’을 개최했다.

2부에서는 성승연 교수가 ‘자살의 의미와 개념’을 주제로 자살에 대한 정의와 자살위험자의 변별, 자살위험 평가 방법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성 교수는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명과 윤리에 대한 교육 △종교개혁은 불교계의 전문적 상담역할 재고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아은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선 계 문

종조 원효보살의 이념을 받들어 근본 진리를 체득하고 대승불교 생활불교를 구현함으로 사회교화와 불국정도를 건설함에 이바지 하고자 창종된 대한불교원효종은 종지를 받들지 못하고 일부 종도들이 도당을 지어 계파를 만들어 종권 싸움을 하여 종단이 와해되던 중 모든 계파가 참여한 법정소승의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의하여 현 체제로 대한불교원효종을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종단의 종법은 멀리하고 속세의 법을 적용하여 고소고발 법정다툼까지 하는 등 불교계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는 바, 본 종에서는 이제 결단을 내리려 합니다.

원효보살의 화쟁정신, 종지를 받들어 원효종 각 계파의 종도들이 허심탄회하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고견을 나누고 고견수렴하여 종단을 재정비하고, 하나된 대한불교원효종을 이끌어 갈까 합니다.

이 선계문을 보신 모든 종도님들께서는 선계문을 보지 못한 주변의 원효종 종도스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자리를 마련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고견 나누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일 시 : 2014년 4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원효종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052-262-6857)

대한불교원효종 대표자 임시종정 김윤철 향운

(추) 원효보살 열반 1328주기 추모대재 (모)

- 일 시 : 2014년 4월 24일 (음 3월 25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 내 원효보살 성상 앞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 총무부원장 해담

자 문 : 원로 위 원 인덕근스님, 태운근스님, 해담근스님, 법성근스님, 도일근스님, 금봉근스님

봉 행 위 원 : 종회부 의 장 윤학, 진혁 법규위원장 지호 법규위원 상경, 진산, 운영 중앙총회의원 상기, 지상, 상도 비구니회장 명관 비구니부회장 자성, 상진, 운영, 인명 서울총무원장 진산 부산총무원장 상도 총남대전총무원장 일문 울산총무원장 해공 강원총무원장 능인 충북총무원장 석암 전북총무원장 경오 전남총무원장 마명 경남총무원장 법성 제주총무원장 법은 총 무 부 장 상오 규 정 부 장 상준 사 회 부 장 상천 재 무 부 장 상화 교 육 부 장 상일 총 무 국 장 선법

진행위원회

진행위원장 : 신도 회장 이응균

진 행 위 원 : 신도부회장 김용태, 조희석

행사에 관한 문의는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02)735-0501 또는 대한불교원효종 울산사무소 052)262-6857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벽송 원로원장 창해 총무원장 향운